

열린 협회를 만들자

Architects! Open Your Mind

李丞雨 / (주)종합건축
by Lee Sung-Woo

건축사협회의 나아갈 길

The Way Ahead of KIRA

- 열린협회를 만들자/이승우
- 회원중심주의/권도웅
- 전문성을 높이자/양진환
-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전태진
- 실제적 실수(實數)의 집단이 되라/이필훈
- 선진건축의 구심체가 되자/지순
- 회원들에게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자/박연심
- 설계감리비에 대한 나의 제안/양원영
- 협회 그리고 건축사인 나/이관표
- 또다시,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것/김광현
- 건축사의 실무 경쟁력 강화/신동우

협회창립 후 30년 동안 많은 질곡이 있었지만 오늘날 건축계가 맞는 여러 크고 작은 위기를 바라볼 때 그동안의 노력은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다. 협회의 제도개선과 회원들의 질적 양적 성장등은 스스로의 자위일 뿐 대내외적으로 바라보는 협회의 실상은 곱지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UR로 인한 개방화 물결에 WTO체제가 출범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계는 일괄수주제 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잇단 발생을 국내 건설 건축인의 무능함과 책임회피로 바라보는 여론의 질타가 심하며, 건설행정의 제도개선에는 인색한 정부는 해외 설계감리업체의 도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세계화, 개방화, 개혁이다하여 저마다 온갖 비리와 악법을 개선하고자 부산을 떨고 있는 이때에 협회도 회원도 나름대로 새로운 물결에 편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협회라 하면 이해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데 급급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협회가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작업이 상기한 내용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 협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안들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결의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정비하겠다고하여 각계 각층의 회원들이 참여한 개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 내용들은 주로 협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안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내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건축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소비자들에게는 협회의 모습이 개방적, 진취적, 선도적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건축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협회의 개선방향을 이 기회를 통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협회의 설립목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상호간의 이해대립을 막고 회원들의 관심사를 모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좀더 발전하여 한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건축계의 선진집단으로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회 운영개선은 절실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다하여 건축계의 위상제고에 앞장서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대해진 협회의 외형을 과감히 축소하여야 한다.

각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 상태를 비교할 때 지금의 협회의 조직구성과 예산집행을 협회의 목적추구와 기능에 걸맞지 않게 방대한 것으로 대다수 회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일반회원들과 집행부사이에 놓여있지만 예산심의 및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공개적으로 하여 모든 회원들의 공감과 신임을 얻어 목표한 바 강력하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협회는 감시 및 제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계는 건설업계의 일부분으로 치부되어 부실시공의 책임자나,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라는 등의 멸시를 받아왔으나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고자 협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협회는 나름대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적정가 수주를 통하여 설계의 질적 수준과 책임을 다하고자 복지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방침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작년부턴 건설기술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와 설계감리보수액의 현실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듯 싶더니 최근에는 회원간의 과열경쟁요인이 없지않으나 정부공사 발주분마저 보수요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 및 현상설계공고가 버젓이 관보 등에 등장하는 현실을 볼 때, 협회의 능력과 조율기능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가수입에 설계기간 단축을 감수하는 작금의 작태에서는 건축경시풍조를 타파할 수 없음을 협회의 회원은 다시한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단순히 권익보호차원이 아닌 현실적 설계보수액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예술성,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넷째 윤리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를 촉구한다.

협회는 회원간의 공동의 질서와 약속을 모아 정관을 만들고 지킴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의 해결에는 전원의 관심사로서 일치된 의견통일과 일사분란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개인적인 비리나 품위의 손상이 현저한 회원에게 지나친 포용력(?)을 드러냄으로써 협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회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보수적이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단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였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축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인이 앞서가고 있는 시민의식을 공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냉소와 질서는 최근의 사건들을 통하여 차마 얼굴을 내밀기 힘들만큼의 심정을 갖게하였다. 명실공히 협회는 그 떨어진 명예와 위상을 다시 쌓으려 한다면 공정한 상벌제도 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회원의 발생시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총회 또는 회장단의 결단을 통하여 협회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고 회원간의 상호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에게는 나눠 먹기식 상패나열이 아닌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써 회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불어 협회의 공인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게 된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협회는 다양한 의견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협회밖에서 친목과 학술모임 등이 탄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협회는 이러한 모임들을 가능한 별도기구 등으로 흡수함으로써 회원이면서도 밖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조화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회는 포용력과 사고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누구나 협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폭넓은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열린협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협회공간이 협회내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행사와 연극 영화공연, 전람회 등이 항상 열리고 있는 개방된 살아 쉼쉬는 공간이 되어 거리문화창달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바탕은 대외적인 개혁지향을 추구하여 실추된 건축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함이다.

매스컴이나 위정자들이 말하는 세계화, 선진화에는 건축분야가 결코 적지않은 부분인데 그 행정수준이나 사회적 인식도는 아직도 기대치 이하이어서 오랜기간 건축계에 몸담아온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슬프고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협회와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협회창립 30주년을 새로운 전환기의 시발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허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현실을 가르며 미래를 개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회원중심주의

Member-Oriented Approach

權棹雄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won Do-Ung

협회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몇 년 남지않은 21세기를 대비하려는 뜻있는 기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뀔 수 있는 세월이고 사람이 태어난 후 스스로의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조직이나 기업체에서 경영혁신과 의식개혁 운동을 시

작하는 시기도 30주년을 계기로 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와 우리나라의 30년전 100대 기업과 지금의 100대 기업을 비교하면 10~20%의 기업만이 존속하고 나머지는 쇠퇴하였거나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는 통계는 30주년이 존폐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특별한 노력없이 10~20%의 성공한 범위의 대열에 합류할 수는 없을뿐더러 더욱이 안이한 자세로는 희망의 21세기를 맞이 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무사안일로 현상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상대적 후퇴의 결과를 낳게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를 강화하여 회원에 군림하는 듯한 조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30년이란 역사적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만한 세월동안 길들여진 버릇을 고치기가 힘든 단점을 갖게되고 협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하고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사 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뜻있는 일일 것 같다.

혁신의 기치아래 조직을 개편하고 거창한 목표를 설정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식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채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설치해도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과 같은 이치이다. 겸허한 자세로 회원이 목소리를 듣고 차분하게 한 가지씩 준비를 해 나갈 때 수년후인 21세기에 회원이 바라는 협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설계의의를 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와의 협의를 마친 후 퍼스널 컴퓨터 앞에 앉는다. 신축예정 부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모니터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확인원)이 확인되고 다음에는 도시설계에서의 규제사항, 건축관련법규중 해당사항 검색, 및 조례 등을 순서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프린트를 하여 파일링한다. 퍼스널 컴퓨터앞에 앉은지 30분 만에 자료확인을 마친후 카메라를 준비한 직원과 함께 현지에서의 조사를 위해 급히 사무실을 떠난다. 계획설계진행중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 서가를 뒤져 보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다.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서 검색을 한 후 모니터에서 사례를 찾아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한다. 이후의 설계작업 단계별로 각종공법, 자재의 특성 및 단가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설계에 집중하게 되어 설계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전시회에서는 작품의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게 된다. 이상의 이야기가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작년 “건축사” 지에서 특집으로 기획한 “건축정보 시스템구축 시급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다. 몇년이 지난 현재 자료수집 및 가공, 그리고 정보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

다. 협회가 아니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건축정보 센터 운영일 것이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교통문제로 설계에 사용해야 할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고 그것은 전국의 건축사 모두가 겪게되는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급인력 낭비라 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좋던 시절이 지나간 지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거는 기대이긴 하지만 몇 년 남지 않은 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여 좀 편하게(?) 설계에 전념하고 싶은 기대를 가져 본다. 편안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사용료가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답답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일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출가한 딸은 친정을 찾게 되고 사업상의 일은 선배나 친구를 만나 하소연 하기도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행정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하소연 할 곳과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별도의 자격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토질기술사나 구조기술사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업무에도 건축사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서대로 시공되고 그들의 책임하에 감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의 조그만 붕괴에도 건축사는 예외없이 처벌을 받으며 관청에서 잘못 시공하여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 관을 건드려 누수가 발생해도 예외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업무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곤욕을 치루게 되는 것은 건축사 한들이 받게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때에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부당한 처사에 대응할 수 있는 협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협회를 그려본다.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야할 건축법 정비에 대한 건의를 하는 한편 위원심사청원 및 행정소송을 대신해 줄 적극적인 협회, 건축설계 관련 최고의 전문 집단으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노력으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들의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체에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된 일이고 굵뜨기만 하다는 행정부서에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가까운 동회에서 거주지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본부와 시·도지부 그리고 자회와의 관계가 전근대적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도서등록신고와 건축사, 보조사, 보조원의 입퇴사신고 그리고 보조원 경력증명, 설계실적 증명발급 등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 하는 것이 협회나 건축사 모두에게 효율적이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축사 사무소마다 준비한 PC와 CAD 시스템까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각종정보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책상 위에서 받아 볼 수 있는 20세기말인데 21세기의 협회와 건축사 사무소의 관계는 더 원활하고 풍부한 정보와 문서가 오가야 되지 않겠는가.

증명서 발급을 위해 협회를 드나드는 것이 회원과 협회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지속적인 관계만이 협회와 회원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 희망과 꿈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무시되면 삼풍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21세기 협회에 거는 기대는 이것을 위한 착실한 준비로써,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한가지씩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UR과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관련협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비록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때에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통합된 행사인 송년회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작품상 대상 선정 및 전시회 개최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 행사이다.

이곳에서 수상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다른 곳에서는 등의 작품이 되는 등 대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건축가들은 어느 협회에 작품을 제출해야 할 지 망설이게 된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상설계에 끌려 다니는 건축사의 숫자에 대한 통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협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 현상설계와 그렇지 않은 현상설계를 구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축사와 협회의 위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사회적으로 떳떳한 일을 해왔다면 삼풍사태로 창립30주년 기념행사가 무기연기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두드리는 동네 복 같은 처지는 20세기로 끝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서둘러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21세기를 스스로 준비하여 건축사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전산망 구축, 건축정보센터설치를 비롯해 회원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협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전문성을 높이자

Up to The Specialization

梁辰錕 / (주)한울종합건축사사무소
by Yang Chin-Hwang

협회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 협회운영과 발전에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사협회창립 30주년이란 사실이 축하드릴 일인지 아니면 회원으로서 자축해야 할 일인지를 원고 부탁 전화를 받으며 어리둥절할 만큼 협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사람이 협회의 장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간 수고한 분들에게 죄송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회원 각자가 노력하기에 역부족인 문제들과 협회에는 전문적으로 사협회 업무를 생각하는 상근 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원 각 개인 보다는 더 큰 힘이 있는 협회, 그 자체에게 당부와 기대를 걸어도 좋으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협회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거창하지 않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맞이할 이 다음 세기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화의 심도가 깊어지고 전문영역의 구분이 세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현상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 인식을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건축허가 내는 사람, 공사를 위한 도면이나 그리는 작업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잘 설계된 집」과 「잘 지어진 집」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공사전문인 시공회사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게 영역을 뺏기기까지도 했다. 또 한예로 감리사항에서 우리의 전문성은 설계대로 지어지는가하는 설계감리부분이지 어떻게 공사하느냐하는 공사감리부분이 아니다.

즉, 감리라는 큰 명칭하에, 공사전문가(시공자)들이 신경쓰고 책임져야 할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다 감리영역에 포함시켜 부실공사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죄인이 우리는 되어 있다.

이는 설계감리에 관한 영역외에 우리의 전문성도 자신할 수 없고 우리가 설계한 대상도 아닌 공사방법이란 영역까지 끌어 안고 공사감시자도 아닌데 옥먹기 하고 있는 현실이란 뜻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 전문영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사회가 우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별무 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문성이 확고히 사회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언제나 「집 짓는」 행위에 부수된 한 조그만 일 또는 그 일 하는 사람으로 대접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 회원도 노력해야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철저히 이익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많은 건축관련법령과 각종 심의제도 등의 난맥적 행정기준들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규제적일 것인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법률, 제도 등이 불편할 때는 적용하기 편하고 지키기 편하게 고쳐져야 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과거 역부족인 시기도 있었겠지만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또, 회원 및 협회의 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영악하게 방법과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가장 자기가 약할 때이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건축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강자의 입장에 일반적으로 있을 때이다. 밤중에 응급실에 가도 미리 돈을 내지 않으면 X-Ray 촬영도 해주지 않는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들도 철저히 손해 볼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설계비 제대로 못받기, 계획안 내주고 먼산보기, 공사감시자도 아닌데 감리자라고 욕먹기 등에 대해 우리 각자가 단독으로 건축주인 강자들에게 대항하기에는 무리이다.

또한 예로 설계비 인상에 관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15년(?)만에 어찌다가 대폭 설계비가 인상되었다. 이런식이라면 아마 2010년경에나 가야 또 대폭으로 인상 될 것이다.

매 2,3년마다 조금씩 올려야 할 것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강자」에게 설계비 산정의 신빙성을 주지 못해 외국친구 말처럼 한국건축사는 영원히 모두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기대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봉사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익집단이 되면 반사적으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또 기여를 통해 우리의 이미지가 잘 심어지면 우리 또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영세한 건축주를 위해, 소규모 건축에 대한 종류별 표준 도면을 구입 할 때 설계를 대신케 하는 방법을 정부와 협의한다든지, 북한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 건축에 대한 자료를 우리와 교환하여 우리 建築史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으로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높여 환경을 보고 이용하는 가치관을 심어준다든지 등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의 협회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에 부합되지 않은 작은 문제의 내용을 몇 자 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의 원초적 문제를 언급했으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다음세기, 다음세대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개별적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 노력을 집약하여 협회가 그 실현을 통해 연구 노력한다면 더욱 빠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많은 부탁을 협회에 드렸다.

새삼 건축사협회와 임직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Our Attitudes Toward to the Reformal Period

全泰鎮 / 예청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eon Tae-Chin

1. 글머리에

올해로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의 건축계가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협회를 비롯한 회원들 각자의 노력이 컸음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창립 30주년의 역사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전에 우리는 근간의 불행한 사고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부실건축에 대한 사회적 지탄, 이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절정에 달하였으며 회원들의 사회적 신뢰마저도 실추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주도한 UR과 WR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냉엄한 세계질서속으로 우리를 보호막없는 알몸으로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내 외적 변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찌하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여야만 하며, 보다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건축사협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이다.

2.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협회의 역할

종합예술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건축에 매료되어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자 함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련과정을 통하여 '건축사'라는 전문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우리는 건축설계라는 직업관에 대한 확신과 비전,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속에서의 건축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큼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전문성 확보의 미흡함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역할, 그리고 신념과 노력의 부족에 원인이 있으며, 사회적 제반여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몫 확보를 위한 부단한 이합집산, 설계비 텅핑, 설계와 감리의 부실은 결국 우리의 설자리를 잃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상의 경제적 이유를 앞세우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해 보인다.

사회에는 엄연히 윤리적 규범이 존재한다. 이제 건축사의 윤리도 확립되어져야 한다. 하루속히 초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창작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도덕성을 회복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시대 올바른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창작

예술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설계사무소의 거대한 조직과 축적된 노하우에 다소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협회가 나서서 회원들 모두가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Data-Base)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즉, 협회는 회원들을 통한 정보수집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각종 정보(디테일한 정보도 포함)의 수집과 발간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과 회원들의 경쟁력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설립과 취지의 오류에 대하여도 분명하고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즉, 반드시 감리자는 설계자가 되어야만 한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시공자의 손에 맡겨지기까지 설계의 전과정에 참여한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 중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한 감리를 할 수 있는지는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본다. 즉, 건축물의 감리는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자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되어지는 건물이 시공과정에서건 유지관리 과정에서건 붕괴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축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Shop Drawing을 시공과정에서 철저하게 제출하게 하고 현장을 감리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공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감리자가 마치 부실에 대한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리들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부터라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위하여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을 제정, 공포하는 해안을 가져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도시가로의 진정한 모습도 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사인(Sign)이나 안내판, 그리고 환경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맥락과 전체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능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대다수 관료들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권위적 관료주의의 물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오류를, 전시행정과 무분별한 시책의 남발을 이제는 그만하자. 그리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만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리와 누구에게라도 땀땀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가로를 만들어가자. 우리에게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협회는 지금까지의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계 및 건축관련단체를 선도하여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개발에 힘써야만 한다.

3. 맺음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협회는 분명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한다. 집행부의 확고한 소신과 가치판단의 기준만 있다면 건설교통부의 눈

치도 그리 의식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비록 우리사회의 물과 구조가 왜곡되어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여 협회는 회원들 모두가 보다 분명하고 공명정대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올바른 도시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개선시켜 나가며, 수준높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을 꾀하여 보다 밝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저해하려는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고발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며,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계몽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건전한 사회일꾼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우리 협회는 건축사들의 대변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적 실수(實數)의 집단이 되라

Expectations to KIRA

李蕊勳 / 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h-Hoon

1. 쓰는 이유

단체, 그룹, 모임 등에 속하기 싫어하는 개인적 취향 때문에 어느 집단적 모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건축사협회의 21C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희극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필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이들이 수동적이건 자발적이건 상당수 속해 있는 집단이 건축사 협회이고 보면 나같이 별 불일 없는 회원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미로 건축사협회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건축사협회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몇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2. 건축사협회가 갖는 문제점

요즘 읽는 국내의 시·소설의 젊은 작가,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의 과반수가 운동권 출신인 것을 보면 사회이쪽 저쪽에 아직 썩은 물이 고여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 우리가 바라던 새 세상이 온 듯하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제껏 존재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지시, 명령으로 생겨났던 수많은 형식들이 깨어지고 재편되고 있다.

냉정하게 이야기 하자면 건축사 협회도 이런 형식중의 하나이다. 문민정부 이전, 거의 모든 직능 협회는 정부의 방침을 수령, 전달하는 관변단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86년 건축사가 되어서 처음 협회를 찾아가 자격증을 건네 받을때 시청 계장인가 하는 이가 처음 건축사된 사람들에게 던지던 그 모욕적인 말투를 아직 잊지 못한다. 마치 죄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듯 무엇을 어겼을때 자격 박탈, 면허정지 몇개월 등을 읊어대는 그를 보며 협회 차원의 교육과 예비군 훈련은 동급인 것을 확인했고, 요즈음 건축사 교육의 좋아진 강의 내용과 도시락 그리고 행운권 추첨에도 불구하고 출석 확인 후 한참이나 떨어진 사무실로 돌아 오는 것은 분명 그때 그 인식 때문이다. 이 작은 일 하나가 협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협회 회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 놓고도 그 협회가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 자치집단이 아닌 관변단체처럼 느껴지는 것, 협회에서 일을 볼때 협회 직원들의 자세가 관청 직원의 자세와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 지는 것, 협회에서 오는 공문형식이 구청공문 형식과 유사한것, 건축사들이 몇몇 모여 만든 단체들이 협회 밖에서 활동하면서 협회를 구시대적 보수집단으로 여기는 것, 새로 만든 집단이 정부와 유착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협회가 아직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것, 협회가 아무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회원들은 협회가 하는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문제점 뒤에 깔려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비군 훈련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무 그리고 수동적 참여 등...

3. 개선 방향

에리히 프롬의 저서 중 '자유에서의 도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프롬은 "근대인은 안정인 동시에 제약이었던 전개인적(前個人的)사회의 여러 구속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개인적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 자유' 는 아직 획득치 못했다며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과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한편, 그를 고립시킴으로써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현재의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군사독재는 개인적 자유를 쟁취키 위한 투쟁대상이었다. 결국 우리는 '~로부터의 자유' 인 소극적 자유를 취득했고 그 취득 과정에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동안은 개인적인 불안과 무력감은 '투쟁' 이란 단어앞에 묻혀 있었다. 문민정부이후의 책들에서 묻어나오는 절망들은 이런 개인적 불안과 무력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시대에서 한치도 정신적 발전을 하지 못한 현대인은 '소극적 자유' 를 취득한 후 결국 또다른 의존대상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즈음에 이르러 여러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개인적 미성숙에 따른 집단화로 보인다. 사회적 진화를 위해선 개인적으로 '적극적 자유' 를 획득키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은 이상(理想)이고, 현실은 개인적 공포와 불안으로 부터의 도피를 위해 또 개인적

이익의 근대화를 위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사실 건축사 협회도 이런 모임의 한 종류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모임이 갖는 공통점은 자발적 모임이라는데 있다.

'21C 건축사 협회에 거는 기대' 라는 제목의 글이 타당성을 갖기위해선 적어도 21C에 기존의 건축사 협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몇년내에 양산되는 건축사가 기존의 건축사 수요보다 많고, 우리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사고를 가진 이들이 수동적·강제적 입회에 반발하게 될때 실제로 건축사 협회는 그렇게 쉽게 21C를 장담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숫자를 불러 회비를 징수하고 징계의 위협을 앞세워 단일하게 협회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 협회도 요사이 유행하는 '의식의 개혁' 과 '발상의 전환' 을 해야 할 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데올로기의 논쟁이 무너진 지금, 사람들은 집단을 찾아 헤매이고 건축사 협회는 그런 건축사들을 위한 훌륭한 집단으로 다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정부측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협회가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눈치보면 변화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또 회원의 이익 보다는 협회의 기존 체제로의 존립만을 고집하는 한 협회는 계속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게되고 결국은 외부로 부터 가해지는 수많은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까지 물리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해결책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에서 눈을 떼면 우린 늘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자율화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협회가 정부의 산하단체가 아닌 이상 소속회원을 강제적으로 입회시키는 방법은 언젠가 배제 되어야 한다. 협회가 아무런 노력없이 회원을 받고, 회비에 의해 쉽게 운영되는 이상 협회는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비군에게 애국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있지만 협회에는 그만한 구호가 없다. 협회가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선 특정 국영 기업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이런 시도가 없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아무 준비없는 강제 무장해제가 요구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문화 해야 한다.

요즈음 어느 분야건 전문화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협회를 이끌어 가는 이들이 협회 일 자체가 자신의 생계와 관계 없을때 감투는 자신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걸치레가 되기 십상이다.

동기부여 없는 업무가 공산주의 몰락의 첫번째 이유였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구호가 말잔치로 끝나는 이유는 구호를 실현해야 할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정보자료 센터, 홍보, 권익 보호, 분쟁해결, 대정부 접촉 등의 창구가 되기 위해선 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를 고용하여 각 업무가 그들에게 생존수단이 되도록 하는 전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21C의 건축사 협회-그것은 허상적인 허수(虛數)의 집단이 아닌 분명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회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실제적 실수(實數)의 집단이길 기대한다.

■ 선진 건축의 구심체가 되자

For a Advanced Architect

池 淳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i Soon

97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 건축설계 활동은 대부분 00종합건축연구소, XX건축문화 연구소 등의 연구소란 명칭으로 설계도를 완성하면 시청앞에 소재한 몇몇 건축사 사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내는 절차를 이용하였다.

그무렵 건축가의 꿈을 가졌던 나는 건축 작품 활동이 뛰어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건축가)의 사무소(당시 건축연구소)에서 디자인, 계획, 설계기법 등 다양한 실무 기회를 닿는대로 배우면서 실무연마에 경험을 익혔고, 주택영단(現 주택공사)의 건축실무는 주택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그 시절에는 건축가의 사회지명도가 높으신 스승과 선배는 작품세계에 심혈을 쏟는 경향이 짙었고, 따라서 건축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건축사법 발효후 건축사 자격을 득한 젊은 건축가들의 독자적 활동이 시작되었고, 사협회도 창설되고, 나도 몇사람이 모여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임했었다. 한국역사상 건축사의 모임으로 처음 발족된 건축사협회의 역할과 활동은, 설계분야에서 설계저작권과 보수가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며, 회원복지, 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가과정에서 형식적 관여에 그치고 대관, 각종 심의 등의 절차에서, 설계내용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허가절차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해마다 늘어나며, 이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우려하는 사회 여론도 클 뿐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에 부담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제를 택했던 관례와 풍토가 금번 시행되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삽입된다는 것에 대해 건축창작과 저작권의 몰이해로서 그 보호가 시급한 상황 등 여러 문제들을 사협회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는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으로, 다가올 건축문화 형성과 도시차원으로

확대되는 대규모 건설 및 미래 구상과 계획을 하며, 건축행정 지도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사무소 및 공동체가 자치제도로써 해결하고 책임지는 설계도서 행정관리제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는 이미 선진 민주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토와 도시환경의 균형있는 발전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건축가는 건축작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진지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피부로 느끼게 급변하는 양상이며, 이는 바로 선진국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본다.

70년대, 80년대 경제도약과 국가 발전으로 많은 건축설계와 건설이 이루어지고, 생활, 주거 환경도 크게 향상되고 설계분야의 규모도 국제 교류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국가발전 에 따라 건축제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도괴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 지탄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도전과 실험하는 열의만으로 일관하던 건축계가 남긴 시행착오가 드러나므로써 자성과 분발의 경종이 되었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입장에서 최저의 투자로 일부 부실한 결과를 자초하고도 모든 행정적 책임을 건축사에게 돌려 올바른 작품 완성을 위한 감리작업은 너무도 제도적 장치로 통제와 처벌만으로 일관하는 분위기가 진정한 건축작품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건축사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예상되는 정보사회에서 첨단 건축시대의 역할을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건축사사무소는 나름대로 자질(능력) 향상과 세계수준의 설계능력을 갖추고 국제교류를 하며 우리 설계 활동 무대로 세계화로 넓혀가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선진 외국 건축가 및 설계 사무소들이 한국의 건설기회를 넘보며, 건축업무에 참여하려고 한국건축주에게 뺏치는 유혹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사대주의 사상이 뿌리깊은 의식과 건축사들의 불신은 건축주로 하여금 외국 건축가를 선호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불신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건축사와 협회는 협력하여 건축가를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공동체로서의 조직, 건축을 꿈꾸는 후진들에게 희망찬 건축적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의 구심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세계화, 개방화시대,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설계과정, 건설과정의 모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전달 보급 관리하는 능력을 시급히 갖추어서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화시대인 21세기의 건축을 주도해나가는 건축사 육성과 안정을 지켜나가는 구심체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협회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걸어온 과정이 한국 현대 문화의 태동과 성장과정을 지켜온 시대였다면 앞으로 5년후에 다가올 21세기는 한국건

축의 위상을 세계 선진 대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발전기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회원들에게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자

Our Purposes and Expectancies

朴研心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him

협회창립 30년이 된 올해는 내가 협회에 가입한지 14년이 됨으로 단순히 시간적 경륜으로는 나도 중견이 되는 셈이다. 협회는 65년 4월, 제1회 건축사 시험을 거친 213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총 회원이 5천명이 넘고 협회 자체의 빌딩도 갖게 되었으므로 조직으로서 무척 발전되었다. 그 사이 우리는 70년대의 해외건설 붐,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93엑스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 건축문화와 현대화된 건축기술을 세계에 소개하였다. 반면 최근의 성수대교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축계의 부실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새삼스럽게 건축사현장을 찾아본다. 개인적으로는 늘 발등의 불을 해결하느라고 협회일은 무관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주변의 생활공간과 환경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설계에 임하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의무에 들어 있는 것이다. 건축사현장에도 있듯이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협회차원의 법제연구, 국제회의 참석 등 활발히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요인은 회원에게 있다. 그러므로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협회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금 각 회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놓여 있지 않는 사무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각 사무실에서의 컴퓨터의 이용률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 협회와의 접촉은 어떤 항목도 없다. 각 사무실에서 구축해야 할 정보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 시간이나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는 협회차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매개정보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의 통치되는 공문서들, 각종 법규, 각각의 행정 지침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전국에서는 14개 지방과 50개에 이르는 분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런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구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하지만 그리스신화의 여신 매두사처럼 여러개의 머리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구조직은 최소한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정보의 전달이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마다 새로이 사야만 되는 법규책만 해도 그 두께가 마냥 두꺼워져 간다. 법규를 개정하고 그에따른 시행규칙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우리주변의 건축환경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악화되기만 한다. 법규를 연구하고, 개정하는 사람들은 법규책의 두께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검은돈은 C.D 채권이 아니라 하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서민들만 불편하게 만든 결과도 마찬가지 예이다. 최근에 금융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대로 실명제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튼 삶이 복잡할수록 많은 법이 필요해진다. 우리주변에서 이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없애려는 지혜야말로 레비스트로스가 '슬픈열대'에서 꿈꾸었던 원시 유토피아로 가는 길일 것이다.

어떤 모임이거나 조직은 처음 그 모임을 만들때의 필요성, 절실함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회원이 늘며, 위계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정관들, 또 그 정관을 실행하기 위한 강령들이 새로이 생기면서 처음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게 된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회원들에게는 필요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이권이 개입되게 되고 모임을 이끄는 헤드부분과 일반회원과의 갭이 심화되어 그 모임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헤드부분은 그것이 개인을 위한 하나의 감투로써 이용하게 된다.

미국의 한 여성단체인 「게릴라 걸스」라는 단체가 있다. 그 그룹을 리드하는 헤드들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주장하면서 일반대중앞에서 하는 강연이나 기자회견을 할 때에는 흉칙한 고릴라 가면을 쓰고 나타나 뉴욕미술계 백인남성의 아성에 도전하는 페미니스트 미술인들의 모임이다. 뉴욕의 게릴라 걸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화랑, 박물관, 수집가, 비평가, 백인남성화가 등 미술계 각분야의 성차별을 각종 통계숫자와 풍자적 도안을 이용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들의 포스터는 그 내용과 방법의 충격도에 포스터 자체의 미술성이 뛰어나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미국내 잠정 회원의 숫자가 5백명을 넘는다는 그들이 그토록 익명성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익명성은 우리의 활동에 여러가지 이점을 준다 - 라고 말한다. 극단적인 예이나 모임의 취지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에 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건축과 관련된 단체로 건축사협회의 외 건축학회, 건축가협회가 있다. 건축가협회는 57년에 창립되었다. 정관에 적힌 그 모임의 목적을 보면 '건축가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건축학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건

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며 '71년에 창립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 3단체는 말고 있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창립 목적에서는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성수교 붕괴와 삼풍사건이후 건설교통부는 건설업법 및 건기법 등 각종 건축관련법을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사건은 사회분위기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건임에도 그 책임을 건축계에 미루고 정부 주도에 의하여 그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때에 3단체는 합심하여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 감리비에 대한 나의 제언

A Proposal for Design-Supervision Fee

梁元永 / 건축사사무소 신태양
by Yang Won-Young

건축물이 붕괴될 때마다 가슴 철렁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다.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과 자괴심이 앞선다.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이고 같은 동료건축사 임에 틀림 없는 일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지켜보며 우리 건축사들은 어떤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대다수 건축사들은 우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건축 창작 풍토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작품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인색한 건축주들의 요구에 싸구려 설계와 아예 받지 못하는 감리비로 인하여 마치 못한 감리를 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변명으로 내어 놓을 수 없는 문제들인 것이다. 보수요율대로 받지 못하는 설계비는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며, 감리비도 우리가 못나서 받지 못하고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수입하도록 위임된 건축사들이 과다경쟁과 과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은 바로 우리들의 부족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차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국의 구두 닻기(구두미회원)들도 일사 불란하게 가격을 통일시켜 나아가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들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도 하물며 공인중개사(부동산 소개업자)들도 보수요율에서 더 받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만은 그 반대다. 설계 감리비의 정상적인 수입이 없이 우리의 설계 감리가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한 설계도와 양질의 감리를 제공하려면 우선 설계 감리비의 정상수령이 첫 번째 과제이다. 설계 감리비의 정상 수령은 우리 건축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불신을 일시에 해소하

는 과제이며 건축사상 제고의 첫 번째 방법이며 영세한 건축사 사무소를 살찌우게 하고, 품위와 자존심을 심어 주며, 과다경쟁을 자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몇 년 전 협회강당에서 이루어진 건축사 연수과정에서 당시 건설부 건축과장은 이렇게 개탄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국내 총 설계 수주액의 3분의 1은 고용건축사(대재벌이나 건축브로커에 예속되어 있는 건축사)에 의해 허무하게 잠식되어 버리고, 3분의 1은 과다 경쟁으로 날라가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용 건축사를 축출해 버리고, 과다경쟁을 지양한다면 우리의 소득은 확실히 3배로 증가한다는 결론이다. 잠식당하고 있는 3분의 2를 방지하고서는 우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협회가 하여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사업이 이 사업임에도 역대 건축사 협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없다. 몰라서가 아니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국민들의 곱지 않는 눈길이 우리 건축사들에게 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묵과할 수 만은 없다. 사무실의 운영난으로 많은 건축사들, 특히 생존 경쟁에 자신이 없는 회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또한 하려고 생각중에 있는 회원이 많음을 우리는 안다. 그동안 덤핑 방지를 위하여, 받지 못하는 감리비 징수를 위하여 우리는 복지회와 합동 감리반을 통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고 소득의 향상도 기하여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건축사들의 거둬나가는 각성과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안일한 자세로는 우리 건축사 협회의 존폐가 우려될 정도로 각종 제도개선으로 인한 건축사의 업무가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 때는 건축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여 감리권의 박탈은 물론 설계권의 축소 조정도(일정규모 이하만 건축사가 담당하고 그 이상은 구조 기술사가 포함된 건축사 사무소만 할 수 있는 가능성)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건축사의 존재는 참으로 왜소하여지고 협회는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거둬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개선해 나아가 주체는 누구인가. 전국의 5천여 회원들이여, 역사에 부끄러운 건축사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통한 일대변혁을 시도하여 이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히 개조해 버리고야 말 것인가.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하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협회와 회원이 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일사 불란하게 단결할 자질이 없는 것일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질문하여 보라. 나는 동참할 수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선다. 그러면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는 누구인가? 그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요, 우리의 동료 건축사인 것이다. 문제는 협회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 협회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96년 1월 1일부터 설계감리비의 단 10원이라도 덤핑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다가 안되어도 회원들의 가슴 속에 큰 숙제는 남겨 놓을 수 있는 효과는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협회가 당명한 과제중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무엇일까?

- 첫째, 설계 감리비의 정당한 수령을 통한 설계의 질과 감리의 질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 둘째, 부실 회원의 제도적인 처벌과 추방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회원이 있는한 우리 협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회원을 다스릴수 없다면 협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셋째, 낱알이 침식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도 국회에 진출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약사회나 의사회 등은 어떻게 회원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국구의원 제도가 있음을 참고로 하자.)

2. 대의원 총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매년 11월이면 대의원 총회가 협회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논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설계 감리비의 정상화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진지한 토론을 한 기억이 있는가?

전국 각지에서 그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모여든 대의원들, 사실상 우리 건축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어렵게 모여 토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행부 선임과 예산안 통과에 황금같은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만다. 회원 10명을 대신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은 10명의 회원들이 갈구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총회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총회를 지켜보는 대의원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막상 협회 발전을 위한 고질적인 숙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향하는 대의원들의 가슴에 총회 참석의 보람을 갖고 가는 뿌듯한 기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틀에 짜여진 행사 진행에 몇번의 거수기 역할과 진지함이란 조금도 찾아볼수 없는 다혈질 발언들, 자기과시형 원맨쇼에 식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 지역에서 우연히 만나 회원들끼리 협회를 걱정하는 토론을 할 때가 있다. 기탄없이 오고가는 토론중에 협회에 대한 기대와 원망, 비난, 좌절, 자조 등이 나오고 결국에는 자포자기로 끝내고 만다.

몇사람이 모여 벌이는 난상 토론속에 우리들의 고민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또한 해결방법도 바로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소박한 희망과 불평들을 우리 대의원들은 정성껏 수집하여 대의원 총회에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의원들인 것이다. 그 작은 모임들,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을 올리는 우리 회원들의 불평불만들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우리협회의

자화상인 것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협회발전을 고대하는 회원이 왜 일부회원 뿐이겠는가. 회원이면 누구나 협회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을 성취해 주기 바라고 있을 것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만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회원들의 소망 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회원들, 서울회원의 3분의 2가 복지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쓰고 있다. 그 이자도 연체되는 회원이 과반수다. 이렇게 가난한 회원들을 위하여 협회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한 결론이다.

협회는 회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지체치 말고 그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10월 총회시에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다.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다.

목표 : 1996년 1월 1일부터 설계, 감리비를 절대 고수하는 사업.

토론의 요지

1. 설계, 감리비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2. 부실회원의 제도, 징계, 고발, 제명 등의 방법은 무엇인가.
3.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이사회에서 설계, 감리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결의.

②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안전상정, 분임토의 등 대의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창출, 대안을 마련.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다루지 말고 10명미만의 대의원을 1조로 편성, 분임토의를 벌인다. 분임토의의 목적은 작은모임이어야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각 지역에서 우연히 만난 회원 몇몇이 협회를 위한 난상토론을 벌이는 회의가 가장 바람직한 토론의 광장이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며 또 토론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도 충만해 지는 것이다.)

③ 대의원들은 각 지역에 돌아가 지역건축사 총회를 열고 같은 방법의 분임토의를 시행한다.

④ 협회회원이라면 누구나 분임토의에 수차례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숙원사업을 자체에 확실하게 성취하는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⑤ 각지역 건축사회에서 수차례 토론을 거친후 회원의 성향을 A, B, C로 분류해 보자.

A회원 : 적극 찬동하는 회원

B회원 : 긍정적이기는 하나 회의적인 회원.

즉,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신회원.

C회원 : 불가능할 것이므로 반대하는 회원.

⑥ A회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B회원은 우리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유도하면 가능한 회원이며, C회원은 따로 모여 강도있게 설득하고, 유도한다. 최악의 경우 별도 관리하는 회원으로 분류한다.

C회원이 B회원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곳이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 ⑦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결의하고 96. 1. 1부터 시행한다.
- ⑧ 회원들은 이 사업의 확실한 확신을 위하여 건축사 인감날인 각서를 제출한다.

협회 그리고 건축사인 나

Team and I, As a Component

李寬杓/ 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Gwan-Pyo

과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소감을 피력하는 연설에서 미국국민에게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요구한바와 같이 협회를 구성하는 건축사 개개인이 협회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협회에 거는 기대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를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에게 한수 접어주고 별관심도 없던 선진외국들은 우리나라의 설계시장확대와 그들의 안정적 불경기를 이유로 우리에게 같은 선상에서의 경쟁을 요구하고 나선 이때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불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한 시기인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생존해 남으려면 상상이상의 노력과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반적인 해답 즉 General Solution(一般解)이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특수해 즉 Special Solution(特殊解)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 두가지만 얘기해보기로 한다.

첫째, 협회는 회원들에게 업무수행중 발생된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선진외국의 바람직한 오늘의 모습이 곧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들 역시도 발전과정중에 수많은 교량과 건축물이 붕괴되는 대형사고의 경험이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르다면 그들은 사소한 실수나 시행착오라도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비판, 그리고 이들 결과의 광범위한 정보의 전파와 교육으로 두번 세번의 반복을 방지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 점이 다를 뿐이다. 한두사

례의 실패가 나머지 전체의 성공의 바탕이 될 수 있듯이 협회는 분야별 시행착오의 원인분석과 수습방안, 앞으로의 대책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법규개정, 정보전파, 개선안 모집 등의 방법으로 이어지도록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제도와 기구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회원 각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시행착오와 실패사예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는 일을 자신을 위한 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겪어야 한다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은가.

둘째, 회원각자는 스스로의 설계수준을 계속 상향조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설계상의 미적요소에 대해서는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매우 주관적이라서 설계수준의 상하를 정량적, 계량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미적요소가 아닌 기술적 요소는 설계수준의 높낮이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겪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서어비스 수준 즉 L.O.S(Level of Service)라는 용어를 자주보게된다. 이는 설계상의 수준을 일컫는 용어이며 영국의 기준을 따르면 A급은 가장 이상적 수준, B급은 설계상 권장치로, C급은 설계의 하한선으로 되어 있으며, D, E급은 설계해서는 안되는 범위에 속하며 F급은 소위 Grid Lock이라하여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대개 설계권장치 이상으로 반영하지만 우리의 경우 법규자체가 E급, F급으로 되어있어서 매우 수준이 낮다.

각종법규란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그 수준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서는 안되는 선을 그려 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법적기준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가기도 급급한 현실이어서 많은 경우 설계수준자체가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 적재하중을 160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180 또는 200등으로 스스로 상향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협회는 협회대로 각종 법적기준의 설정근거를 밝히고 어떤 경우에 이를 상향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각종 법체제는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많다. 그중 유사한 대목을 들라면 대부분의 법조항 말미에 관할관청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내용을 법으로 완벽하게 제한, 규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적용상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문구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만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얼마든지 소신을 가지고 이를 완화적용 또는 적용제외하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각자가 법의 제한 내용을 상한선으로 하여 무수히 이를 피하려고 한 까닭에 반사불이익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모든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순서를 정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크게 어려운 일도 없으리라고 본다.

결국 선진국이라는 것이 강제적 행동규범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인 국민각자의 노력에 결과인점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상향 조정한 규범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각자 개인의 떳떳한 노력과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협회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또 다시,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것

Again, Making This Society to Tell Architecture Through its Own Culture

金光鉉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by Kim Kwang-Hyun

나는 작년 4월 건축사지에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 3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글을 게재한 바 있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학생 수준의 건축에서는 각종의 다양한 문화가 거론되고 이를 건축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엿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오히려 문화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는 커녕 저 먼리 뒷걸음쳐 건축의 현실에 대한 본래의 모습에 의문이 제기될 쓰라린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거론하기도 싫은 삼품백화점 붕괴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문화로 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아마추어의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 실제의 현실적인 프로의 세계에서는 문화란 공염불처럼 들리게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건축이, 건축의 실천을 담당하는 건축사협회가 그 면모를 일신하고 21세기 한국 건축계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는 조직의 변화나 각종 제도의 개혁에 앞서는 것만큼이나, 그 근간은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건축이 단순히 물질의 집합으로 경제의 논리만을 따르고 이를 해결해 주는 도구적 수단으로만 이해되는한, 건축의 발전도 없고 21세기를 바라보는 건축사협회의 방향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편적인 판단이지만, 이제까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만의 이권 단체였다는 인상이 나에게 강하게 남아 있다. 물론 협회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이권을 대사회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를 리드

해 온 단체라는 점에는 다소 의문이다. 건축사가 정부의 인정에 의해 얻어진 자격인 만큼, 바로 그 정부기관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가 종속적인 입장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원의 이권이란 종속적 관계에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며, 무언가의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만 정당하고 바람직한 보호가 따를 수 있는 법이다. 체제상으로는 물론 종속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임무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인정받지 않는 이상, 협회의 미래상은 바로 정립되지 못할 것이다.

회원의 이권과 권익 보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이름이 달리 불리우는 데 권익 보호가 상승될 리가 없다. 그 때문에 사회의 많은 직업들은 자기의 이름이 보다 정당하게 불리우도록 하는 데 매우 열심이었다. 운전수가 운전사가 되고 다시 운전 기사로 바뀌었으며, 간호부가 간호원이 되고 다시 간호사가 되었으며 보험 외판원이 생활설계사로 바뀌어 불리우는 예는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건축사만은 본래부터 건축사였는데 명칭이 강등되어 건축설계사로 불리우는 일이 그 얼마나 많은가?(그런데도 심지어 어제 보았던 모건설회사의 광고문에도 "나도 주택설계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형편이다)그리고 이러한 일에 건축사협회는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라고 몇 차례 당당히 주장한 바가 있었는가. 따라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전문적 직능인으로서의 이름조차도 이 사회가 올바르게 불러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권익 보호 단체의 발전 방향은 냉정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달리 불리우는 이름을 바르게 불리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건축사가 단순히 집을 설계해 주는 숙련자가 아니라, 건축이라는 문화적 문맥을 가진 물체를 만들어 그 안에 사람이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문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건축사가 아닌 설계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거나, 말을 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축소된 의도와 행동에 자족해서는 이름이 달라지지도 않을뿐더러, 이름에 부응하는 문화적 행동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건축사협회건 다른 단체건 또는 건축가건 건축 교수건 건축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시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부르게 하는 일에 있다고 믿는다. 물론 본래 문화일 수밖에 없는 건축을 새삼스럽게 문화로 불리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건축이 제 본령을 차지하지 못하고, 문화의 영역에 속하지도 못하는 부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건축사가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리드하는 전문인이란,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권익이 보호되고 또한 신장될 수 있다. 21세기가 그리 멀지도 않은 5년 후에 다가오는 것이라면, 21세기의 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역할이란 결코 SF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금의 문제

에 관련 된 것일 뿐이다.

문화는 향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화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이데올로기와와의 관계 속에서 꽃 피우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사란 일반적인 의미의 건축가와는 달리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은 사람이며, 그 제도 안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건축사는 건축계의 어느 계층보다도 제도 그 자체를 갱신하고 수정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짊어진 이들이다.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문자 그대로 문화를 창출하는 전문인 집단이라면, 전문인으로서의 권익과 건축의 본질적인 모습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의무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부당한 행정 절차와 처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건축사협회 스스로가 실천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그릇된 건축법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협회 스스로가 문제를 던지고 옳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사협회는 이 사회로 하여금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의무를 짊어진 집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란 건축사협회가 문화적 행사를 많이 하고 건축사를 위한 문화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한 건축사 개개인 모두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자는 의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문화가 경직된 제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며,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하는 최전선에 선 집단이 바로 건축사협회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21세기, 그러나 우리는 100년에 걸친 그 21세기 전체를 예측도 할 수 없거니와 100년에 걸친 협회의 역할을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의 일만을 계획하고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은 상황은 크게 달라져도 조건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10년이 지난 것처럼 또 다른 10년은 금세 닥쳐올 것이고, 안이하게 바랐던 보랏빛 꿈도 회색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건축계는 각종 제도에 얽혀 왔고, 그 제도 속에서 수많은 건축사들이 밤을 새워 작업해 왔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문화인으로 자처하며 언젠가는 이 사회로부터 불려질 문화로서의 건축의 모습을 그려 왔다. 그런데도 현실과 문화 사이에는 언제나 제도라는 괴리가 놓여 있고, 제도의 인정 속에서 활동하는 탓에 바로 건축사들은 그 제도 안에서 번민하여 왔다. 이런 까닭에 건축사란 건축의 어떤 계층 중에서도 가장 현실에 얽혀 활동하는 자들이다.

나는 21세기를 향한 건축사협회의 행보는 이제부터 매우 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건축사협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의 발전과 변모에 비교하면 그 행보가 너무 느렸다. 더욱이 앞으로의 10년은 건축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예측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아주 급하게 변화해 갈 것이라면 그 행보는 더욱 빨라야

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말하게 함은 건축사가 누리게 될 가장 보람된 권익이다. 그렇다면 건축사협회는 문화로서의 건축을 향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의 벽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건축사의 실무 경쟁력 강화

The Source of Competitive Power in Architectural Practices

申東宇 / 이주대 건축학과 교수
by Shin Dong-Woo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한다. 또 혹자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에서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가지게 되지만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회 도처에서 흐르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과 새로운 정보화의 흐름은 시민의 의식을 무척이나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전문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흔히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 특성의 변화를 소품종 다량 수요에서 다품종 소량 수요로 표현한다면 전문 직업인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도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단순히 변호사, 의사, 기자 등으로 분류되던 전문 직업인들이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문제나 무역 관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지고, 재활 의학이나 물리치료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문의가 생기고, 언론에서는 분야마다 전문가 출신의 전문 기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언론인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건축과 그 주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요구에 의하여 인류 문명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 받아 왔지만, 오늘날 사회가 건축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의 수요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의 다양성은 요구되는 건축물의 유형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 필요한 건축사의 역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는 기성 건축사들이 건축에 대하여 가지는 전통적인 관념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어 심지어는 건축사들의 업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초래하기까지 이르렀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건축사가 수행해 왔던 주도적인 역할은 기술자 그룹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

면하고 있으며, 수퍼프로젝트의 건축과정에서 건축사들은 점점 제한적인 역할만을 위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실 건축에 대한 책임을 건축사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으며, 또 상당 부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건축사는 사회로부터, 주변 기술분야로부터, 시공자로부터 현재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과 함께 몰려 올 외국의 설계업체와 힘겨운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경쟁이 건축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실의 변화에 대한 깊은 분석과 함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방향과 전략을 정한 후 발 빠르게 조직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많은 기업이 이와 같은 상황을 기업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경쟁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건축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부하는 건축사들에게서는 아직도 이와 같은 조직적인 노력의 예를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건축의 주변 변화를 분석하여 건축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건축실무를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현재의 건축사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의무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흔히 고려되는 것이 경쟁력의 개념이다. 사회가 국제화, 세계화됨에 따라 국민 각자의 대외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매스컴에서도 공무원, 경찰관 등 다양한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세계 속에서 자신의 경쟁대상을 정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의 경쟁상대는 과연 누구이며, 그 경쟁력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건축사의 경쟁 상대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대상이 소위 선진국의 저명한 건축사들일 것이다. 또 그들에 대한 경쟁력의 원천은 우리 건축사 개인의 설계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설계 교육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국의 건축사에 대한 우리의 취약한 경쟁력은 사실 개인적인 설계 능력 자체 보다는 설계를 포함한 건축 실무를 수행하는 체계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더 많이 기인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축 수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건축실무 역시 프로젝트마다 요구되는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실무 수행체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실무수행체계는 뛰어난 품질보증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

다. 또 신공학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 수행체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접국의 중심 공학과 경쟁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세 주체 간의 전통적인 계약에 의한 체계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이 요구되는 체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다양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건축사 업무는 새로운 전문 직종에 의하여 침식당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이와 같은 뚜렷한 변화의 흐름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집행부가 나서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건축산업의 현안이 되고 있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 감리제도, 종합건설업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 건축사들은 거의 일치된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이들 문제에 대하여 관(官)이나 건설업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찬성과 반대의 차원을 떠나서 요즈음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경쟁의 상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쟁의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건축사의 역할을 건축주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로 본다면, 건축사의 전통적인 상품은 건축설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요구되는 다양한 건축실무 수행체계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건축주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건축사의 경쟁력은 설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외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새로운 전문적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건축사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조직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실무기반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자협회의 성격으로부터 시급히 탈피하여 종합건축용역서비스협회의 성격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21세기의 변화와 새로운 건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브레인 그룹에게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 온 30년의 역사에 비추어 21세기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바라 보는 21세기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이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더욱 절박하게 기대되는 시점이다.